

79
—
80

부호일련업계 분석과 전망

(79년도 육계업계 180만수 분양추정)

신
정
일
(아동복지회 502부과장)
(생애연구소)

1. 머릿말

세모의 거리는 암울한 분위기에 짓눌리워져 있다.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쌀쌀한 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춥게하고 따듯한 봄날은 아직 멀었고 밝은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양계업계가 홀로 독립되어 있는 경제분야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일개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세계 총경제의 극히 작은 기계부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검은 먹구름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예견케 하고, 우리나라를 휩싸고 있는 무거운 기운은 우리 양계업계의 앞날을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필자가 이번의 글까지 해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 3년째 그 다음해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78년 연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여름 삼복을 잠깐 제외하고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꼭 1년동안의 혹독한 불황을 당하고 있는 터에, 새삼스레 내년도 80년의 경기를 전망한다는 것이 어딘가 걸맞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어색해지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라빠진 전망이며, 전망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것이 필자뿐 아니라 우리 양계인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할 것은 해야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세가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인간의 의무라는 뜻에서 필자는 또 다시 펜을 잡았다. 독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2. 상황과 분석

가. 79년도 업계 분석

우선 79년도에 형성된 육계업계의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79年度 육계가격동향(79. 12. 15현재)

구분 월별	시세 (원/kg)	상황 및 분석	참 고 사 항	비 고
78. 11 20	900		• 새미 880원	• 날씨 갑자기 쌀쌀해짐 11. 23소설(음10. 23)
11. 24	830	• 하락세, 소비격감. • 11. 25급어일 이후 김장피크	• 새미 800원 • 12. 12선거공고, 득표 활동 활발	• 날씨 계속 온화함. 금요일
11. 28	750	• 시세 곧두박질, 소비격감 • 부산지역 근교 850, 원거리 800(750~800까지 하락예상)	• 호남, 충남지역 대설	• 기온급강하, 서울영하7℃
12. 1	670	• 닭은 많지 않음. 소비 위축 원인 김장격정 유난히 높음. • 병아리 판매 - 처지는 기미 나타남.	• 중부서해안 지역 해일. 돌 풍피해 많은(눈, 비)	• 추위 풀림
12. 5	650	• 부평 670/오토, 판교 620원/차량	• 부산 800, 대구 ND 만연.	• 육용종계 노계 570원/kg • 12. 7대설(음11. 8)
12. 8	660	• 동아일보 12. 7일자 톱기사 선거 열풍, 최소 300~400억 살포, 연말 호황 앞당겨움	• 부산 650원 보합세	• 날씨 춥지 않음.
12. 12	650	• 부천지역 720원 • 12. 14경부터 전국적으로 병 아리 판매 처지기 시작	• 국회의원선거, 사상최초야당 우승, 벨린트출신 홍성우氏 당선	• 난가상승세 특란 31원 • 날씨 계속 무근 • 12. 17초·중·고·방학 날 씨 추워짐.
12. 18	630	• 하락세. 부천지역 700원/오토 • 대구 ND 피해극심 • 12. 22 포천 600원 문산 620~ 640원 • 12. 24세밀경기절정. 연휴 탈 서울인파 20만	• 대한양계협회 총회 • 12. 22개각. 농수산부장관 이희일氏 • 12. 22농지(음11. 23) • 12. 27. 제9대 대통령 취임	• 날씨 매우 추움. 서울지역 영하 5.3℃ • 12. 19 서울영하 8.8℃ • 12. 20서울 영하 9.2℃ • 12. 25X-mas
12. 26	610	• 대구 670 서울지역 육계출하 부진.	• 연말대비 생필품값 상승세.	
12. 31	600	• 경기활발치 못함. 사회 전반적 인 구매력 감퇴. 77年末에 비 하여 덜 흥청거림. 귀향수송 열차. 조용함. 검약풍조.	• 새미 580원 • 전국적으로 입추중지현상 서울-79. 2月도계법시행 부산-김해대저지구철거 대구-ND 만연	• 날씨 추움. 서울영하 11℃ 일요일.
79. 1 3		• 정초 시장경기 작년의 1/2 • 병아리 덤핑 난무(100원/수)	• 서울 인현동 중앙시장, 모정 육점의 1일 갈비짜관매경향 77년 연말 150쪽 78년 연말 60쪽	• 1.4시무식 • 날씨 춥지 않음. • 1.6소한(음12. 8)
1. 7	530	• 새미 580원	• 병아리 계속 덤핑	• 일요일
1. 12	510	• 12. 11경제기획원 농산물 정		• 12. 13호남선 두절(터널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황 및 분석	참 고 사 항	비 고
1. 15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발표(국제경쟁력 없는최고기 국내생산포기, 완전수입개방, 국제경쟁력 있는 돈육, 계육등 접차수입개방) • 씨미 450원. 제주도 하이부 로 800~850 • 사료구입난파동 • 소비부진 생산과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32원, 돈육 780원/생체 • 돼지새끼 40,000/두 양돈계 속 호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너짐. 3일만에 개통) • 12. 14서울영하10℃ • 충청, 호남, 강원-폭설 • 대구ND 끝나고 부산ND 시작
1. 19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사료생산급증 		
1. 22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세, 부평, 인천 550원/kg • 12. 24인천 580원/오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600. 부산600보합광주 660 	
1. 28	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산씨미 4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출하경향-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 일요일 • 1. 30대관령 영동지역 폭설 1.75m 교통두절
2. 1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 5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 서울영하11℃ • 2. 2 서울영하15℃
2. 4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570원/오토. 장호원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7 제주 700원 광주 6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계속불순
2. 8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경향보통, 사료파동, 씨미 출하 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450원 • 광주 6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 활짝개이고 따뜻함
2. 12	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4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27원 대란24원 	
2. 13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400원 		
2. 14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두리 최저시세 3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년오일쇼크이후 최악의 상 태라고 인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17국내 5 대부화생산 업자 긴급회의, 초생추 생산 1/2로 감소 병아 리판매 최악의 상태
2. 18	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380~ 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대닭 550~600원 부산 380원-ND 만연 	
2. 21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320, 농수산부 비축결 정(450~500원 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육 580원/생체 자돈35,000원/두 (돈육시세 최고 730원까지 되었으나 계 속하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27, 대란 22원
2. 28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세, 부산 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ND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씨추움.
3. 3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부천지역 450원/kg • 전국지역 최저시세 32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노계출하하지 아니함 육 용중계시세 400원/kg 	
3. 7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350~380원-계속 침체 • 하이부로-완만한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29원 • 대란24원 • 비축영향 	
3. 10	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날-각 기업체 휴무. 날씨매우화창
3. 13	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미 4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아리 딸림 	

구분 월별	시 (원/kg)	상황및 분석	참 고 사 항	비 고
3.15	550	• 썬미 470원 • 부산 570, 대전 520원 광주 500원	특란31원 대란26원	• 목요일
3.19	530	• 썬미 400, 하락세		• 월요일
3.28	460		• 사료구입난원인 출하경향	• OPEC 유가인상9.05% (제 2 의 석유파동)
3.31	400	• 계속하락세		• 토요일,
4.4	450	• 상승세, 닭상인 활동활발 • 서울지역ND만연, 입추중지 현상, 부산ND 계속	• 울산그룹신선호사장구속	• 화창한 봄날씨 • 4.5 식목일
4.6	480			• 한식일
4.10	480	• 시흥 550원/오토, 부산 550 -580 대구 530-550, 전주530 광주 500	• 병아리탄매 부진극심 • 시세상승세	• 특란35원, 대란31원
4.11	500	• 썬미 400, 육계중계 370		
4.17	510	• 썬미 450, 의정부 580/오토 • 부천지역 600원/오토, • 썬미시세가 대담시세보다 항 상낮음. • 초생추 덩핑극심. 부화장생산 병아리 자체입추경향많음.	• ND피해극심. 병계출하로 시 세억압. • 지방간이 비닐하우스계사 소 채로 전환 경향 • 양계인→양돈업으로전향	• 소비절약운동 대대적인 캠페인
4.25	470			• 특란36원, 대란32원
4.29	530	• 썬미 500원	• 시세 상승세	• 육용중계노계 480원/kg
5.2	570	• 썬미 540원/오토 • 5.3~5.5대연휴 경부톨케이 트 차량홍수 5km • 5.6일요일, 비	• 초생추판매호전경향	• 세계농구선수권대회 • 5.3-4월초 8일날씨화창
5.7	650	• 일산, 부천 700원/오토	• 시장닭가게 판매왕성	• 5·8어버이날 날씨화창
5.11	680			
5.19	600	• 소비자세 보통	• 초생추단가인상경향	• 최근일기상황-밤에는적 절한비, 낮에는화창
5.23	610	• 서울보합세, 지방하락세 • 부산 680, 대구 630, 전주700 광주 670, 대전 640	• ND 계속, 병아리팔림 한협 120원, 하바드 160원 • 병아리 생산감소. • 상승세, 대담없음. • 자돈15,000~20,000 돈육 550원/생체 육계업자 양돈업으로 대거 진출 • 병아리 매우부족, 신규업자 거의 없음.	• 날씨계속 좋음.
5.26	630	• 썬미 600원 • 서울 신설동의육용중계상인 H씨-최근 3개월동안 10만 수 처분. 출하될 육용중계없음		• 토요일
5.29	610	• 부산 570		
6.5	620	• 보합세		

구분 월별	시세 (원/kg)	상황 및 분석	참 고 상 황	비 고
6. 12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세 • 이후 6월말까지 계속 보합세 • 특란28원, 대란23원, 중란20원 • 소란16원, 경란1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500 • 돈육 450원/생체근당 • 6월말경 병아리치짐 • 카터방한 6.29-7.1 • 부화업체 감원경향 • 특란30원, 대란25원 • 돈육규격돈 450/생체 • 일반돈 300/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요일 • 6.24장마조기개시 • 6.26이리폭우 270mm 전 • 북 15억 피해 • 날씨 며칠계속 좋음.
7. 3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
7. 10	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미 650원 • *오일쇼크-물가대폭인상 기름 • 값59%인상-7월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2초복 • 7.16장마끝
7. 17	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승세 		
7. 19	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오토) 780원/kg • 대구 7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부 비축계육방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1국민교방학 • 7.22중복
7. 25	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 820원/오토중상 		
8. 1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미 700-750원 • 대구 720원 • 8.5부산 700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용중계노계 45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더위35.6℃ • 경기중부 집중호우-8.2 • 중부지역8.5폭우 사망실 • 종 124명, 재산피해300억 • 서천 최고 456mm • 강원도 평창 8.5새벽 • 2~3시간에 200mm
8. 7	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미 750원/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로 지방닭반입 격감 	
8. 11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지역 840원/오토 • 1.5kg까지 거의 출하됨 • 윤달이지만 소비강세 • 생산자출하경향-시세 좋으면 썬미출하 서슴치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날씨 좋고 폭염. • 배추, 무우, 생선폭락 • 돈육목측거래 • 규격돈 350원/근 • 노 돈 250원/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복8.11, 토요일
8. 14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계 500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고기소비경향- • 유통소비(외부소비)보다 • 가정소비(내적소비)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28원, 대란23원
8. 17	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미 780~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어빙호
8. 24	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7-8.23사이 790~800 • 시세유지, 금일부터하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노계 520원/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위30℃ • 8.25전남, 경남폭우 하동 • 509mm 사망실종 134명 • 재산피해 304억원
8. 27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7월요일의 대폭락-8.26 • 까지 날씨 더위, 금일부터 완 • 전날씨 선선해 지면서 양계 • 인 스스로 덩핑출하 난무, 이 • 후 매일 폭락현상과 지역에 • 따라 시세영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
8.31	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미 6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추중지경향 • 돈육공포증-9.1부터 비계없이 • 근당 1,000원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란30원 • 9.1인천시 도계법실시

구분 월별	시 세 (원/kg)	상황 및 분석	참 고 사 항	비 고
9. 5	600	• 부산 650—하향세		• 특란32원
9. 8	550		• 토요일의 대학살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 이유있다 결정	• 특란34원, 대란28원
9. 11	540			
9. 17	500	• 쉐미 500원/차. • 보합세	• 돈육 370원/생체근당	• 특란38원, 대란33원 • 일요일
9. 27	470	• 쉐미 500원/오토		• 난가주춤 특란37원 육계종란—식란처분부화 장 입란증지경향.
9. 29	450	• 도십내 가축사육금지근거로 생계상인단속—출하마비상태	• 부화장 입란증지. 양계장 입 추증지경향	
10. 2	400			• 특란37원 보합세 • 10.5추석
10. 9	350	• 추석물량1/2정도저리됨 • 일부지역 300원 출하 이후계 속 300~350원시세 • 10. 18부산 400원 • 10. 22대구 550원	• 병아리 덩핑난무	• 10.20 축산진흥회 계육 비축개시 450원/kg • 10.22특란28원
10. 23	430	• 시세 폭상승	• 대구 550원	• 비축 1일 약 7,000수 실시
10. 28	480	*10.26대통령급서 계엄령선포 유흥업소 유흥놀이 일체증지	• 10. 26충격, 소비격감 그러 나 뒷담없음.	• 10. 30비축단가 550원으 로 인상
10. 31	500			• 11. 3대통령국장
11. 7	500		• 날씨 계속 무근함.	• 11.8통금완화
11. 13	450	• 추위내습 영하 8℃ (서울) 시 새하락세, 병아리덩핑	• 특란23원. 대란18원	• 11. 14서울 영하11℃
11. 19	420	• 쉐미 350원		• 비축수매계속 (금일현재 약14만수비축)
11. 24	400			• 11. 27비축수매가격 480 원 인하조정
11. 27	350	• 병아리관매난극심	• 정치발전계속	• 12. 1수매가격 400원인 하조정
12. 3	380	• 대구 300원, 부산 400원	• 특란26원. 대란23원	
12. 5	400	• 일부지역 450원, 인천 500	• 중계노계 230~250원/kg	• 12. 6대통령보결선거
12. 15	400	• 시세주춤	• 개각 농수산부장관 이재철氏	• 12. 8비축끝, 토요일 • 날씨계속 따뜻함.

참고 1. 서울지역 기준, 차량대상기준(오토—오토바이 중상)

2. 자료—필자조사자료

위의 표 1을 보면 올해의 육계경기는 분석
할 전덕지도 없다. 78년 11월 중순경에 형성

되었던 김장철 최고시세 kg당 900원대 이후
동년 12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한 시세가 삼복

중에 나타났던 700~800원대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300, 400원 500원대에서 맴돌았다. 2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축산업계사상 가장 충격적인 “최고기 국내생산 포기”라는 정책과 함께 비교생산비설이라는 경제이론에 입각한 농축산물의 완전수입개방시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계속된 몇년간의 호경기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능력은 팽창하였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건설경기의 위축정책, 신청제팀의 물가현실화에 따른 물가대폭인상, 7월 10일의 기름값 59% 인상등으로 소비의 극도 침체, 수입육에 의한 압박등으로 79년은 지난 73년의 오일·쇼크 이래 가장 큰 불경기의 한해였다. 그나마 10월 하순경부터 희망적으로 상승하던 시세가 10·26 대통령 서거로 철퇴를 맞고 도로 떨어졌다. 올해는 산란업체도 불황이었고, 양돈업계는 더욱 심하였다. 가히 79년도는 축산업계의 수난의 한해였다.

표 2 년도별육계가격동향(원/kg)

년도별 월 별	77	78	79
1	700~760	800내외	600~500
2	750~550	750~550	500~350~450
3	500	550~480	400~550~400
4	500	500내외	500내외
5	600~700	500~650	650내외
6	650	620	630
7	650~750	650~800~700	700~750
8	850~750	730~780~730	750~800~750
9	680	700~600	600~450
10	600~500~600	570~850	350내외
11	700~750	900~800	500~350
12	650	700~600	400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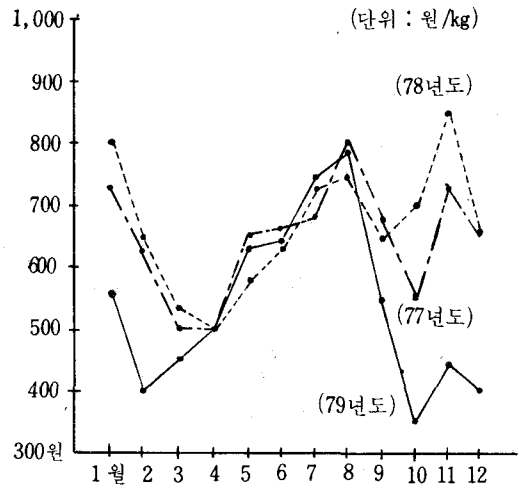
참고 1. 서울, 경기지역 중심
2. 차량대상시세중심

나. 육계가격('77-'79)

77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형성된 육계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고, 이의 추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77년도의 최고시세는 8월의 850원, 최저시세는 3~4월의 500원, 78년도의 최고시세는 11월의 900원, 최저시세는 4월의 500원, 79년도의 최고시세는 8월의 800원, 최저시세는 2월과 10월의 300원대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묘한 현상은 3년 공히 1월의 높은 가격 이후 하락하여 2~4월에 최저시세를 이루고 5월부터 상승하여 8월이 가장 높고, 9월과 10월에 하락한 후 11월에 상승, 그리고 12월에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년도별 계가격동향 비교('77-'79)



다. 육용종계(PS)-79년도 종계분양수수 약 180만수 추산.

77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의 육용종계 분양수수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년도별 육용종계(P.S) 분양현황(우 기준)

년도 월별	77	78	79
1	10,118	85,136	105,260
2	33,010	145,717	150,310
3	74,645	198,210	248,400
4	111,170	193,180	145,980
5	108,909	204,500	120,830
6	94,183	125,140	120,140
7	93,710	75,960	109,885
8	77,350	49,530	105,999
9	72,680	43,930	86,650
10	51,185	42,190	139,215
11	32,820	58,850	63,690
12	42,050	58,240	미 정
계	801,830	1,280,583	1,396,359

- 참고 1. 대한양계협회자료
 2. 수입종계 포함
 3. 78년도 미집계 수수 약30만수 추정.
 4. 79년도 미집계수수 다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양계협회에 집계된 분양수수는 77년도가 80만수, 78년도 130만수이며 올해는 11월까지 해서 140만수로서 12월까지 합하면 약 145만수 정도가 집계될 것이고 당연히 누락되어질 수 있는 미집계분까지 추산할때 1979년도의 육용종계 분양수수는 총 180여만수로 예상할 수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심한 불황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계가 입추되었을까? 78년도에 집계된 종계분양수수가 약 130만수이고, 실제분양수수를 약 160여만수로 추정할 때 올해의 180여만수는 우리를 놀라게 한다.

월간양계 78년 1월호의 78년도 경기전망에서 공식적인 집계자료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한 77년도의 육용종계 분양수수 약 55만수가 그 이후 실제 집계에서 80만수로 나타났고 동기사에서 78년도의 육용종계 분양에

상수수 약 100만수가 그 후 130여만수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78-79년도에 수입된 종계도입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78-'79육용종계(PS) 수입현황(우 기준)

년도 월별	78년	79년
1	11,926	15,000
2	13,027	28,160
3	8,913	78,000
4	—	28,000
5	—	30,000
6	—	17,000
7	—	—
8	28,499	7,000
9	12,100	15,000
10	18,817	29,400
11	7,730	7,000
12	25,000	미 정
계	126,012 (\$ 20,393)	(254,560)

- 참고 1. 대한양계협회자료
 2. 표 3의 종계분양수수에 포함될 수수입.

금지되었던 종계수입이 77년부터 풀렸고 올해의 장기 불황으로 다시 최근에 잠정적으로 중지되고 있다. 위의 표 4에서 보면 78년도 126,000수, 79년도에 약 255,000수가 수입되었고, 79년도 3월의 78,000수, 후반기 10월에 30,000수의 수입이 특이하다. 육용종계의 분양수수에 직결되는 육용 원종계(GPS)의 도입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육용원종계(GPS)가 1수당 종계(GPS)가 1수당 종계(PS)를 50수씩 생산한다고 추정할 때 79년도에 도입된 원종계(GPS) 16500수는 약 80만수의 종계(PS)를 생산하게 된다.

표 5. '78-'79육용원종계(GPS) 수입狀況
(우계열우 기준)

년 도 별 월	78년	79년
1	—	1,000
2	—	1,000
3	—	750
4	—	750
5	—	—
6	—	8,000
7	—	—
8	—	—
9	—	5,000
10	6,000	—
11	2,097	—
12	4,179	—
계	12,276	16,500

참고 1. 대한양계협회자료.

표 6. 년도별 육용초생추(cc) 생산잠재력 (단위만수)

년 도 별 월	77	78	79	80
1	265	409	1,042	967
2	292	448	1,087	1,034
3	321	516	1,090	1,096
4	351	579	1,089	1,157
5	362	645	1,099	1,183
6	367	687	1,100	1,259
7	362	708	1,075	1,216
8	368	717	992	미 정
9	340	727	904	
10	323	760	864	
11	324	844	905	
12	364	937	925	
계	4,039	7,977	12,172	(7,912)

참고 1. 8개월육성, 10개월 재종기준.

75. 8~76. 5분양종계가 77. 1월의
초생추 생산에 해당. 생존율 90%, 산란율 50%
배부율 70% 기준

라. 육용초생추(cc)

앞의 “나” 항에서 논의된 육용종계(PS)분양수수에 근거를 두고 77년부터 지금까지 월별 육용초생추(cc)에 대한 총생산 잠재력을 산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양된 종계가 모두 제능력을 모두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나타난 육용초생추의 생산잠재력을 표 6에서 보면 77년도 이후 해마다 그 수량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고, 올해는 매월 거의 1,000만수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량은 80년 2월 부터 다시 증산되어 80년도 6월에는 사상 최고인 약 120만수를 나타내고 있다. 80년도 하반기의 생산수량은 79년도 12월 이후부터 분양된 종계(PS)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종계의 분양수수가 설혹 대폭 감소한다. 치드라도 이미 분양된 종계만으로서도 대개 월1,000만수 내외의 생산잠재력을 갖게 된다.

표 6의 육용초생추 생산잠재력을 년도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그림. 년도별 육계사료 생산비교 (단위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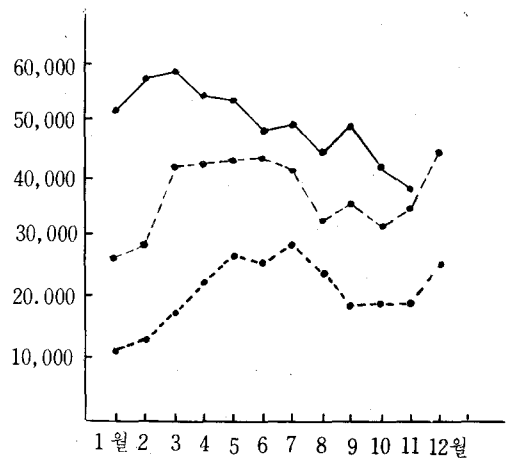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면 년도별로 육용초생추의 생산잠재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즉각 실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분양된 종계의 수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요인과 분양된 그 종계가 모두 정상적인 초생추생산에 참여되었다고 생각 할 수 없는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강의 추세만을 지나온 우리의 현실과 매우 잘 부합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마. 육계사료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양계업계의 경기에 영향을 나타내는 각종 통계자료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는 육용배합 사료의 생산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년도별 육용계 사료 생산현황(단위M /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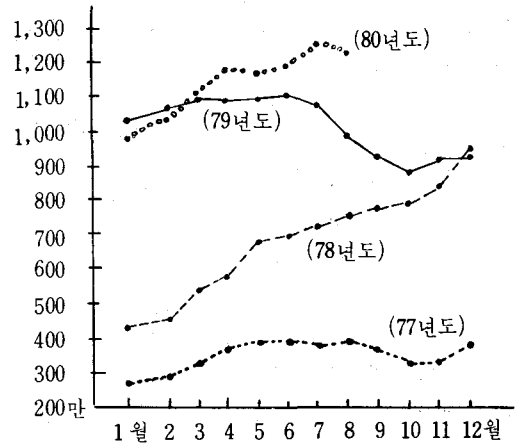
년도별 월 별	77	78	79
1	10,042	26,600	50,588
2	12,574	29,663	57,704
3	17,670	42,115	59,698
4	22,035	43,042	53,488
5	25,651	43,914	53,215
6	24,962	44,316	46,327
7	25,983	40,904	47,435
8	23,463	32,276	44,905
9	18,583	35,266	49,221
10	18,472	31,193	41,717
11	18,057	34,175	38,359
12	23,069	45,261	미 정
계	240,561	451,725	542,657

- 참고 1. 77년도 총 배합사료생산실적 190만톤 (양계사료 115만톤)
 2. 78년도 총 배합사료생산실적 269만톤 (양계사료 164만톤)
 3. 80년도 배합사료수급계획 : 총생산예정 350만톤 (양계사료 194만톤, 육계사료 473,000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77년도 육계사료 총생산량은 약 24만톤, 78년도는 약 45만

톤, 79년도는 11월까지 약 54만톤이 생산되었다. 신장울에 있어서는 77년도에 대비한 78년도의 188%증가가 매우 높았으나, 증가 물량면으로 볼 때는 79년도의 증가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80년도 사료수급계획을 보면 총사료생산예정 350만톤, 그중에서 양계사료 194만톤—육계사료 473,000톤으로 되어있는데 79년도 생산량보다 대폭 축소되고 78년도 육계사료생산분과 비슷한 수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리송하다. 육계사료 생산추세를 년도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2. 년도별육용초생추(cc) 생산잠재력 비교(단위만수)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사료생산자료를 기준으로 앞의 각종 자료를 분석할 때 그 추세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흥미를 충분히 끌고 있다.

以上이 79년도 육용업계와 지난 3년간의 업계상황에 대한 발차취이다.

3. 결론과 전망

가. 생산과 수요

또 다시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제 2 회 양계

진흥 심포지움(78. 11. 17)에서 발표된 정부 시책중에서 닭고기의 소비목표를 보면 80년도는 국민 1인당 약 3kg, 전체 3,800만의 인구가 소비하는 총 계육은 정육으로 약 114,000톤으로 일단 되어 있다.

허구같지만 이것을 정육율 50%, 평균생체중 1.4kg로 가정하여 총 수요수수를 산출하면 연간 약 1억 6천만수정도이며 이 중에서 일반농가와 산란노계가 차지하는 약 3,000만수를 공제하면 육용계가 80년도에 필요로 하는 수수는 약 1억 3천만수로서 79년도에 분양예상된 종계수수 약 180만수가 생산해 내는 병아리 약 1억 5천만수는 우선 계산상으로도 과잉현상으로 나타난다.

앞의 "2"항에서 분석한 종계분양수수와 초생추생산 잠재력은 분명히 과잉이다. 다만 마지막 한가닥의 실낱같은 희망은 79년 연말 현재 각 부화업자가 얼마나의 종계를 정리해 주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무리한 요구이다. 79년도 10월에 입추된 종계를 어떻게 12월에 도태시킬 수가 있겠는가?

나. 기름값 인상과 사료값 인상.

지금에 와서 세계의 경제는 중동의 OPEC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원유 배럴당 23달러선이 곧 있을 카라카스의 OPEC 회의에서 30달러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결정됨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가뜩이나 불황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를 더욱 악화되게 결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각종 인상요인으로 배합사료가 가격이 80년도 초에 대폭(약 17%선)인상되리라는 소식이 확실하다고 보면 사실상 육계업은 끝난다는 인상밖에 남지 않는다.

이란의 호메이니를 필두로 한 세계의 정치정세 또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고, 과도정부상태에서의 80년도 우리나라 정치기류 또한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은 항상 빛나가기 위하여 존재하고 경기전망의 결론에 대한 적중율은 오히려 50% 이하일런지도 모른다고 하지만—한마디로 80년도의 경기전망은 암담할 따름이다.

月刊養鷄 합본 판매중

78. 6~78. 12
79. 1~79. 6

문의는 ② 3571~2